

도솔천에서 쫓카빠 대사를 모셔 오는 기도문

나무 구루 만주 고샤야

도솔천의 100인의 천신들의 보호자의 가슴에서
완전무결한 우유 빛 몽게구름 피어나고
정상에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룡상 닥빠와 제자들께서는
이곳으로 왕림 하소서.

눈앞에는 사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연화좌가 있고
그 위로 환하게 웃으시는 존귀한 스승께서 앉아 계시네.
신심 어린 나의 복덕으로 쌓아 올린 최상의 복전에서
불법이 흥성하도록 오래오래 머물러 주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마음,
선연이 있는 자들의 귓가의 보석과 같은 귀중한 말씀.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몸.
보고, 듣고, 기억할 때마다 유익한 스승께 예경합니다.

보기 좋은 공양물, 가지각색의 꽃,
향기로운 향, 등불, 향수 등
실제로 준비한 공양물과 마음으로 그린 무량한 공양물을
최상의 복전인 당신께 올립니다.

무시이래로부터 알고 모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들과 그 중에서도
세 가지 계율을 어긴 것을
진심으로 낱낱이 참회합니다.

스승께서는 말세에도 많이 듣고 수행에 매진하여
세속팔풍 여의시고 사람으로 태어남을 가치 있게 하셨으니
보호자의 위대한 행적에
저희는 함께 기뻐합니다.

고귀한 스승들의 법신(法身)의 공간을
지혜와 자비의 비구름으로 뒤덮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깊고 광대한 법의 비를 내려 주소서.

제가 지은 이러한 선업으로
불법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위대한 룡상닥빠의 법의 정수가
오랫동안 빛나게 하소서.

“대상이 없는 자비를 지닌 관세음보살,
흠 없는 지혜를 지닌 문수보살,
모든 악마를 제압한 금강수보살,
눈의 나라의 위대한 대학자 룡상 닥빠께 예경합니다.”

대승의 스승을 만난 이 인연으로
세세생생 스승 쫓카파께서는
부처님들께서 칭찬한 이 선한 길에서
단 한 순간도 제가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